

[KYAY-01] '2009 세계 천문의 해' 준비 현황 보고

세계천문의 해 준비 TF 팀 (발표자 : 김호일)
한국천문연구원

2006년, 국제천문연맹(IAU)과 UNESCO에서는 '2009 세계 천문의 해'(IYA2009, 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 2009)에 관한 결의안을 UN에 제출했으며, UN은 2007년 12월 20일, 제 62차 총회에서 '2009 세계 천문의 해'를 공식 선포했다. 2009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최초로 천체를 관측한 지 400년이 되는 해로서 IAU에서는 '우주, 당신을 기다립니다(The Universe: Yours to discover)'라는 주제로 IYA2009를 기획하고 있다. IYA2009는 천문학의 사회문화적 기여를 되새기기 위한 지구촌 시민 전체를 위한 최초의 축제이며, 지구촌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주에 대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과학 전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발견의 기쁨과 지성적 유희, 과학문화의 가치를 체험케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IAU와 UNESCO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개의 국제핵심과제(International Cornerstone Projects)를 지정했다.

IAU는 천문학과 자연과학이 인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IAU는 전 세계 천문학자는 물론, 천체물리학자, 아마추어 천문학자, 과학 홍보전문가들간의 네트워크를 연결, 지원하고, 이들에게 지식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107개국과 17개 국제기관 및 단체가 IYA2009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40여 개국, 곧 세계 인구의 약 97%가 행사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지난 해 10월에 "2009 세계 천문의 해"의 준비를 위해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행사 아이템 발굴 및 예산안을 마련하여 왔다. "2009 세계천문의 해" 추진 배경과 IAU의 공식 행사 계획 그리고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KYAY-02] '2009 세계 천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 2009): 한국천문연구원 Task Force 활동 보고

세계천문의 해 준비 TF 팀 (발표자 :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 세계 천문의 해'(IYA2009) TF(Task Force, 이하 'TF')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TF는 그동안 IAU와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천문학회, 한국우주과학회,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등과 행사 공동개최, 운영에 관한 실무 차원의 논의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해 말, '2009 세계 천문의 해' 국내 웹 사이트(www.astronomy2009.or.kr) 개설과 함께 TF는 국내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안)을 담당부처에 제출했다. 우리는 그밖에 국내 유관기관, 단체들과 공동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해서 논의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에 IYA2009 기념우표 발행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TF는 한국천문학회를 통해 '2009 세계 천문의 해' 국내 이벤트를 전시, 교육, 행사 및 학술회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IYA2009 전시 이벤트는 '우주의 신비', 교육 이벤트는 '꿈과 우주', 그 밖의 각종 행사성 이벤트는 '우주와 나'라는 주제로, 국민들이 우주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학술부문은 UN Basic Space Science Workshop 한국 개최 등 천문학과 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TF 활동을 통해서 기획한 국내 이벤트 후보와 행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소개한다.